

Başlık/ Title: 김내성의 '변격적' 추리소설을 통한 대중에의 접근 -『마인』의 대중적 인기 요인 분석

Yazar/ Author
Yeon Jin JANG

ORCID ID
0000 -0002-3960-195X

Bu makaleye atf için Yeon Jin Jang, 김내성의 '변격적' 추리소설을 통한 대중에의 접근 - 『마인』의 대중적 인기 요인 분석, *KARE*, no. 9 (2020): 315-332.

To cite this article: Yeon Jin Jang, 김내성의 '변격적' 추리소설을 통한 대중에의 접근 -『마인』의 대중적 인기 요인 분석,, *KARE*, no. 9 (2020): 315-332.

Makale Türü / Type of Article: Araştırma Makalesi / Research Article

Yayın Geliş Tarihi / Submission Date: 10.02.2020

Yayına Kabul Tarihi / Acceptance Date: 30.06.2020

Yayın Tarihi / Date Published: 30.06.2020

Web Sitesi: <https://karedergi.erciyes.edu.tr/>

Makale göndermek için / Submit an Article: <http://dergipark.gov.tr/kare>

Uluslararası İndeksler/International Indexes



Index Copernicus: Indexed in the ICI Journal Master List 2018 Kabul Tarihi /Acceptance Date: 11 Dec 2019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Kabul Tarihi /Acceptance Date: 28 Oct 2019

DRJI Directory of Research Journals Indexing: Kabul Tarihi /Acceptance Date: 14 Oct 2019

EuroPub Database: Kabul Tarihi /Acceptance Date: 26 Nov 2019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Yazar: 장연진(Yeon Jin JANG)*

김내성의 '변격적' 추리소설을 통한 대중예의 접근 -『마인』의 대중적 인기 요인 분석¹

<국문 초록> 이 글은 김내성의 첫 장편소설이자 추리소설인 『마인魔人』(1939)이 당대 독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던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리소설의 불모지였던 한국 문단에서 『마인』의 인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추리소설은 번안물/번역물정도가 전부였던 당시에 김내성은 말그대로 추리소설을 '개척한' 작가이다. 그러나 김내성은 1940년대 이후 여러 편의 대중소설을 창작해 높은 인기를 구가하였고 그의 작품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로도 각색되어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김내성의 문학 이력 전체를 고려한다면, 그를 '한국 추리소설의 대명사'로만 지칭하는 것은 그가 이룬 성과들을 오히려 한정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마인』의 성공 요인을 '대중문학'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재고한다. 실제로 '추리 요소의 부재'를 한계로 지적받는 『마인』을 완성도 높은 장르문학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인魔人』이 내재한 대중적 요소들에는 '광의의/방계적/변격적인' 추리소설을 지향한 작가의 소설관, 통속성¹이 아닌 '대중성'을 강조한 작가의 문학관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마인』의 대중적 성공이 크게 세 가지 요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주인공인 탐정 유불란의 성격이다. 유불란은 논리보다는 직관에 의존하고, 사건을 해결할 때는 한 발 늦거나 잘못된 예측을 내놓는 문제적인 탐정이다. 유불란은 결코 유능한 탐정이 아니다. 그러나 유불란이 보여주는 어리숙함과 헛점들은 『마인』에 '유머'를 부여한다. 종종 발생하는 유머러스한 상황들이 유불란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작품에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멜로드라마적인 요소와 이의 배경이 되는 도시 경성이다. 작품 인물들의 거개가 연애의 삼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는 '가상의 도시' 경성에서 펼쳐진다. 『마인』 속의 경성은 당시에 실제하지는 않았으나, 외국영화들을 통해 대중들에게는 익숙한 화려함과 역동성을 지닌 도시이다. 그렇기에 대중들에게 낯익고 낯선 경성의 풍경은 극장 체험에 버금가는 흥미를 선사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필자'의 목소리이다. 이 역시 극장의 '변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독자에게 인물의 감정이나 배경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필자의 목소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와 직접 소통하며 서사와 사건의 진행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살펴보았듯, 김내성의 『마인』은 추리소설로서의 완성도를 성공의 척도로 보기는 어려운

* Ögr. Gör. Dr., Erciyes Üniversitesi Edebiyat Fakültesi Kore Dili ve Edebiyatı Böl. yeonjinjang@erciyes.edu.tr, Orcid No: 0000-0002-3960-195X,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전임강사

¹ This work was supported by Core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AKS-2019-OLU-225002).

소설이다. 그러나 탁월한 감각을 지닌 대중문학 작가로서의 김내성은 추리소설인 『마인』에 '유머소설', '연애소설, 대중문화의 첨병인 영화적 요소를 녹여내어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주제어 : 김내성, 마인, 대중문학, 대중소설, 추리소설, 탐정소설, 유머소설, 연애소설, 경성.

The Popularity of Kim Nae-sung's Main : an 'Anomaly' Mystery Nove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s behind the popularity of Kim Nae-sung's mystery novel, Main(1939). This is Kim's first full-length novel and a mystery novel. In the 1930s, there were only a few mystery novels in Korea, mostly translations of Western novels. So, the success of Kim Nae-sung's pioneering mystery novel Main was very unusual. However, many 'popular literatures' created by Kim since the 1940s have been highly popular. Kim's popular novels were made into radio dramas, television dramas, and movies, and were much loved by the public. He ha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Korean pop culture, and Main, which is not a 'well-written' literary work, requires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r novels. Because it is difficult to rate Main as a good mystery novel. In fact, many researchers evaluate the lack of reasoning elements in Main.

However, Main's these features are related to the writer's attitude toward mystery novels. It is an 'anomaly' mystery novel. This 'anomaly' was also emphasized by Japanese mystery novel writers Edogawa Ranpo, Kim's teacher. Kim Nae-sung also has a novel's point of view that values popularity.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is work is not a typical mystery novel. And Main's popular popularity lies in the fact that this work is an 'anomaly' novel.

The article analyzed three main factors why Main was successful. The first is the character of detective YuBulan, the main character. YuBulan is rather logical intuition dependent and the events resolved when a too late or incorrect predictions 'problematic' detective. YuBulan is never good detective does. These weaknesses of Yubulan make Main a humorous novel. The humorous situations that often occur naturally because of his personality.

The second is the element of melodrama and an exciting spectacle. Most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are in a love triangle. And their relationship goes on in 'the virutal city' of Gyeongseong. Gyeongseong in the novel is very different from what it looks like in real life. Unlike reality, the city in the novel is too splendid and dynamic. However, the public is familiar with Gyeongseong in the novel through foreign movie. To the public, Gyeongseong in the novel is an unfamiliar and familiar city. And these factors give the public an interesting experience, like watching a foreign movie.

The third is the hidden voice in the work. This voice acts like a silent-film narrator. This voice conveys the emotions and background of the character to the reader vividly. And this voice goes further here, communicating with the reader and giving a three-dimensional account of the narrative and the proceedings.

Kim has an unerring talent as a writer of popular literature, and Main has all the ingredients of the popular novel. The main character, the detective YuBulan, is comically inept, and his ordinariness appeals to the ordinary reader. The setting has all the elements of melodrama and excitement in the splendid and dynamic city of Gyeongseong, where most of the characters are in a love triangle. The narrative voice gets across the emotions of the characters vividly in a three-dimensional account, which is almost cinematic.

Kim mixes elements of the humorous novel, the romance novel, and of the cinema in Main. These factors define the novel as a transformative mystery novel of the 1930s in Korea.

Keywords: Kim Nae-sung, Main, popular literature, popular fiction, mystery novels, detective stories, humorous stories, romance novels, Gyeongseong.

1. 대중문화의 전방위적 활동가, 김내성

김내성(金來成, 1909~1957)은 1935년 3월, 일본의 탐정문학잡지 『프로필』에 「타원형의 거울」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당시 와세다 대학 법학부 독법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김내성은 일본어로 창작한 단편 「기담 연문왕래奇談戀文往來」와 「탐정소설가의 살인」을 각각 『모던 일본』(1935.9)과 『프로필』(1935.12)에 잇달아 발표한다.² 그는 1936년 졸업과 동시에 귀국하여 「탐정소설가의 살인」을 한국어로 개작한 「가상범인假想犯人」을 「조선일보」(1937.2.13-1937.3.21)에 연재하며 한국에서의 문필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집필한 소년물 『백가면』(『白假面』(『少年』, 1937.6-1938.5)의 인기는 단행본의 출간(1938)으로 이어지고 <조선일보>(1939.2.14-10.11)에 『마인魔人』을 연재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한다. 그가 '한국 추리문학의 대명사'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은 1930년대 후반에서 해방 이전까지 주로 추리소설³을 창작하였고 특히 『마인』이 장르문학으로서 일정한 완성도를 성취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⁴ 1930년대의 한국 문단은 추리소설의 불모지에 가까웠다. 애드가 앨런 포우나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블랑의 고전적 추리소설 작품들이 번안/번역되어 독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추리소설은 이러한

² 등단작인 「타원형의 거울」은 '新人紹介'란에 수록되었고 「탐정소설가의 살인」은 '特別懸賞募集'에 입선으로 당선되었다. 「기담연문왕래」는 원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김내성의 작품 연보에 기재되어온 작품으로 그간 「연문기담」이라는 제목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정혜영은李建志의 「金來成といふ歪んだ鏡」(現代思想, 1995. 2)에 제시된 당시의 기록과 「朝日新聞」(1935.9.5)의 광고문을 근거로 본래의 제목이 「기담연문왕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김내성이 1938년 12월 『朝光』에 발표한 「戀文奇談」을 이와 동일한 작품으로 본다.(정혜영, 「김내성과 탐정문학-일제시대 창작작품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 연구』20집, 한국현대문학회, 2006. 참조)

³ 이 장르는 일본의 용법에 따라 '탐정소설' 지칭되었으며 '미스터리 소설', '범죄소설', '서스펜스 소설', '법정 소설', '경찰소설', '스릴러 소설', '스파이소설' 등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다만, 인용문의 용어는 그대로 살려 '탐정소설'로 옮긴다.

⁴ 『마인』에 관한 당대의 대표적인 평론으로는 안회남의 글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안회남은 '김내성 씨는 우리 조선 문단이 가진 최초의 탐정소설 작가요 이번 상재된 『마인』은 또한 이 땅 출판계에서 처음 대하는 장편 탐정 소설이'이라고 말한다.(안회남, 「김내성 저 『마인』-명탐정 유불란 선생」, <조선일보>, 1940,1,15)

번안물/번역물로 한정된다. 해방 이전까지 발표된 순수창작 추리소설은 김내성의 작품을 제외하면 다섯 편 남짓에 불과하다.⁵ 모리스 르블랑의 소설을 탐독하고 유학시절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인 에도가와 란포(江戸三亂歩)에게 사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내성은 독자층이 빈약하고 추리소설의 창작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1930년대 한국 문단에 나타나 『마인』으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음⁶은 물론 일련의 단편소설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한국의 추리소설은 자생적으로 생성되었다기보다 번역으로 '소개'되고 김내성 개인에 의해 '이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추리소설에서 방향을 바꾸어 해방 이후에도 『청춘 극장』(1949), 『인생 화보』(1953) 등의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다. 아동문학인 『똥똥이의 모험-박쥐편』(1946), 『황금 박쥐』(1957), 『쌍무지개 뜨는 언덕』(1958) 등을 통해 일구어 낸 성과나 라디오 드라마 작가, 아동물을 포함한 소설 번안가, 악극과 연극, 영화의 원작자 등으로 보여준 활약을 고려하면 김내성은 한국의 문단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인물이다.⁷ '한국 추리문학의 대명사'라는 수식은 오히려 대중문화 전반에 끼친 그의 영향력을 추리문학의 범위로만 한정짓는 것으로 보인다. 장르를 넘나들며 당대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은 김내성 작품의 공통된 특성은 무엇보다 '대중성'에

⁵ 김창식이 작성한 목록을 살펴보면 1918~1945년까지의 번역/번안 추리소설은 총 56 편이고 1931~1943까지 김내성의 작품을 제외한 순수창작 추리소설은 다섯 편이다. (김창식, 「추리소설 형성기의 실상과 김내성의 『마인』」, 『현대문학 이론연구』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참조)

⁶ 1939년에 단행본으로 발간된 『마인』은 1941년 6판이 나왔다. 그리고 이후 불과 오 년여 만에 18판을 돌파했으며, 한국전쟁 직후에는 30판을 넘어섰다. (강옥희, 「30년대 후반 대중소설의 출판」, 『민족문학사연구』13호, 민족문학사학회, 1998과 박진영, 「연보 및 작품 목록」, 『판타스틱』봄호, 페이퍼 하우스, 2009. 참조)

⁷ 박진영이 정리한 작품 연보에 의하면 김내성의 작품은 리메이크를 포함하여 총 18회 영화화되었고 직접 대본을 쓴 것을 포함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드라마는 총 12편에 달한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번안한 라디오 장편극 『진주탑』(1946)은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어 곧바로 재판을 찍을 정도의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 소설 외의 장르에서도 그의 작품은 고루 인기를 얻었으며 그 인기는 사후에도 지속된다. 1967년 강대진 감독에 의해 영화화된 『청춘극장』은 이십여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는데 이 흥행기록은 1960년대의 십대 흥행작 안에 드는 것이다. (박진영, 위의 글 참조)

있다. 『마인』은 그간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 안에서 고찰되었으나 대중문화라는 더 넓은 틀 안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김내성이 추리소설을 더 이상 쓰지 않은 해방 이후부터 김성중이 출현한 1970년대까지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한국 문단에서 공백기로 남아 있다. 이는 『마인』의 인기가 장르적 특성 외에 대중의 감수성과 요구를 정확하게 포착한 작가 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되었음을 방증한다.

2. 추리소설『마인』의 ‘한계’와 ‘가능성’

이 글은 김내성의 작품들이 가진 ‘대중성’에 주목하여 『마인』의 대중적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르 문학은 일반적으로 작품과 독자 사이에 작동하는 일종의 규칙/관습을 기반으로 성립된다. 아직 뚜렷한 독자층이나 변변한 작가층이 없었던 상황 하에서 장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던 당대에 한국 추리소설의 효시이자 성공한 추리소설 작가로,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공백기로 그 존재감을 반증한 김내성은 극히 특수한 ‘현상’에 속한다. 작가 개인의 존재로 장르문학 전체의 흥망이 좌우된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추리소설로서의 『마인』은 장편으로 탐정의 등장과 서구 추리소설의 내용과 형식에 근접하다는 형태적 완결성에서는 논자들의 일정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급작스럽게 주은몽의 쌍둥이 동생 예쁜이가 등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논리적 모순⁸, 오상억이 주은몽을 압도하며 주범으로 부각되는 전도⁹, 논리와 추리의 대결이 인물들 간 감정의 진실 문제로 변화함으로써 추리소설은 사라지고 연애소설만 남았다¹⁰ 는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⁸ 오혜진, 「1930년대 추리소설의 존재방식에 관한 일고찰」, 『우리문학연구』20집, 우리문학연구회, 2006.

⁹ 김창식 역시 예쁜이의 등장을 『마인』이 가진 두 가지 한계점 중의 하나로 지적한다.(김창식, 앞의 글)

¹⁰ 김주리는 식민지인 조선에서 피식민인 탐정의 합리성이 서양의 근대 추리소설이 보여주는, 탐정의 추리력만으로 안정을 되찾고 모순 없는 질서가 가능한 세계를 구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인』을 ‘서구 추리소설의 번역과 왜곡이 혼종된 서사’로 평가한다.(김주리,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본 김내성의 『마인』」, 『한국문예비평연구』2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정혜영¹¹은 「타원형의 거울」과 이를 한국어로 개작한 「살인예술가」¹²의 비교를 통해 단편인 원작이 중편으로 개작되면서 간략한 묘사가 많은 분량의 대사로 전환되고 과다한 설명이 첨가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자리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추리가 약화되고 조선의 현실이 일본과 혼종되며 왜곡되었다고 평가한다. 일본에서 발표한 두 편의 작품을 제외하면 이후 김내성의 작품은 일종의 '괴기문학적' 특성을 훨씬 강하게 '드러내며'¹³ '극소수에 불과했던 조선 탐정문학에서 어김없이 발견되었던 추리부재의 상황'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 이는 '추리부재'로 요약될 수 있는 위 글들의 『마인』에 관한 한계와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혜영의 글에서 언급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려 했던 작가의 의도와 '괴기문학적' 특성의 강화는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김내성은 추리소설 장르와 대중문학에 관한 평문을 쓰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글들에서 제시된 작가의 문학적 지향점은 정혜영이 '추리부재'의 요인으로 파악한 두 가지 사항과 매우 유사하다. 그는 추리소설을 '협의의/정통적/본격적인' 것과 '광의의/방계적/변격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전자는 '어디까지든지 하나의 제출된 수수께끼를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에 주안을 두'며 후자는 '비록 謎의 제출, 논리적 추리, 의외의 해결은 없다손 치더라도 어딘가 탐정미를 포함한 소설'을 가리킨다.¹⁴

다시 말하면 亂步는 수수께끼 小說의 非藝術性에 不滿을 품고 좀더 手法이 自由로울 수 있는 怪奇小說이나 犯罪小說(一般小說과 同一한 手法)로서 藝術味를 加味 乃至強調하였다.¹⁵

本格的探偵小說과 變格的探偵小說의 分類는 勿論 探偵作家의 本場인

¹¹ 정혜영, 「근대를 향한 왜곡된 시선-김내성의 「살인예술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3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¹² 김내성, 「살인예술가」, 『朝光』, 1938. 3월~5월까지 연재.

¹³ 안희남도 『마인』이 '본격적 디텍티브 스토리라는 것보다는 보다 많이 다만 소위 미스터리 스토리로 기울어진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한다. (안희남, 앞의 글)

¹⁴ 김내성, 「추리문학소론」, 『비밀의 문』, 명지사, 1994, 344면. (이 글은 1939년의 방송 강연 원고를 재수록한 것이다)

¹⁵ ____, 「탐정소설론-제 1회」, 『새벽』, 1956, 3, 127면.

英米것이 아니고 文藝評論家요 同時에 探偵作家이던 故平林初之輔의 區別이다. 勿論이러한것까지는 몰라도 좋지만 本格的探偵이 소위 퍼즐(Puzzle) 第一 主義로 나가는, 그것이야 말로 探偵작고로서는 本格的인 것이고(이러한 種類의 探偵小説에 登場하는 諸人物은 必然적으로 大概가 人形같은 「로봇트」들이라) 變格的探偵小説이란 것처럼 수수꺼기第一主義, 人形같은 登場人物의 不自然性을 除去하기 爲하여 探偵小説을 하나의 文學적 作品까지 끌어올린것을 이룸이다.¹⁶

광의의/방계적/변격적인 추리소설은 김내성이 사사한 에도가와 란포의 추리소설이 지향하는 바였으며 김내성 역시 그러하다. '본격적 탐정소설'은 논리적인 추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기계적인 인물들을 창조하여 '예술미'를 갖추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는 '변격적 탐정소설'일 때 비로소 '예술미'를 갖춘 문학작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¹⁷. 서구의 추리소설을 전범으로 설정한 논자들의 관점에서는 김내성의 추리소설이 유사한 외형만을 보일 뿐 '추리의 부재'로 결국 이에 미치지지는 못했다고 평한다. 그러나 김내성이 지닌 추리소설관은 이처럼 궁극적인 도달점이 뚜렷한 것으로 일본에서 귀국한 뒤 창작한 작품들 -『마인』을 비롯한- 은 작가의 문학관을 섬세히 독해했을 때 더욱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讀者層은 森巖(이 形容詞에 呪詛가 있기를!)한 文學만을 要求하는 것은 아니고 作品을 읽으므로 스스로를 즐기고저한다. 요지음 흔히 보는 所謂 文藝物이란 似而非의 怪物에 시달리는 讀者層이 눈물겨웁다. 勿論 全體적으로 云謂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것도 藝術이었던가? 하고 「뮤-즈」를 한번 더 쳐다보고 싶은 것은 非單 筆者만이라.¹⁸

¹⁶ ____, 「탐정소설수감」, 『博文』제 10 호, 1939.

¹⁷ 김내성은 『청춘극장』의 후기에서 '나는 20 년 전 탐정소설에 손을 대면서부터 탐정소설에 대하여 항상 불만의 念 을 품고 있었다. 탐정소설에는 인간성이 있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탐정소설에서 인간성을 고창하면 탐정소설의 생명인 탐정적 흥미-객관묘사에의한 수수께끼의 제출이 탐정의 추리를 거쳐 이의의 해결을 볼때까지의 강렬한 써스펜스가 인간성을 고창할 수 있는 主觀묘사에의하여 파괴 또는 약화되어 독자에게 만족할만한 탐정적 흥미를 주지못하게 되어 탐정소설로 볼때에는 실패하기가 쉽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자신의 추리소설이 결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작가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백철, 「김내성론」, 『새벽』, 1957, 4.에서 재인용)

¹⁸ 김내성, 「탐정소설수감」, 앞의 글.

(김내성)은 첫째로 통속성과 대중성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설에서 통속성은 배척될 것이지만, 대중성은 소설적인 문학성으로서 중시하고 크게 살려가지 않으면 현대문학은 우리문단의 소위 순수소설이라는 편협한 私憾小說로서 偏化하고 독자대중과 고립되어가서 고갈해버릴 것이라고 痛論하였다.¹⁹

김내성은 작품을 읽으며 즐거움을 찾길 원하는 독자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소설에서 통속성과는 구별된 대중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1930년대의 문학을 대표하며 '순수 문학의 기수'로 알려진 이태준이 통속성을 긍정하면서도²⁰ 단편과 장편을 뚜렷이 구별하여 신문연재소설/장편소설에서만 연애의 삼각구도를 기본 축으로 한 '통속성'을 드러낸 것과 달리 김내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문학의 대중성을 강조하며 이를 창작의 기본 원리를 삼았다. 김내성은 자신의 추리소설이 '예술미'를 갖춘 '변격탐정소설'이면서 동시에 대중성을 내포한 문학이기를 바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대중성'은 소설의 제재를, 독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획득될 수 있다.

추리의 부재를 낳은 '조선의 현실 반영'과 '과기문학적' 특성의 강화(변격적 추리소설의 면모)는 '왜곡'이나 장르적 규칙에의 '미달'이면서 동시에 대중성을 위한 '변형', 그리고 문학성(예술미)을 담지하기 위한 작가의 '지향점'이다. 역설적이게도 『마인』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재한 추리의 자리에서 이 작품의 대중적 성공 요인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3. 『마인』의 대중적 성공 요인 분석

3-1. 문제적 탐정, 유불란

코난 도일에게 살록 흠즈가 있다면 김내성에게는 유불란(劉不亂)이 있다.²¹ 『마인』²²의 예고된 연쇄살인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은 모두

¹⁹ 백철, 「김내성론」, 위의 글.

²⁰ 이태준, 「통속성이라는 것」, 『무서록』, 깊은샘, 1995.

²¹ 모리스 르블랑을 음차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타원형의 거울」에서부터 등장하는 유불란은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김내성은 초기에 '유불란'을 필명 사용했으며 라디오 드라마 극본인 「히틀러의 비밀」이나 번안소설인 「심야의 공포」에는 '백린'이라는 탐정을 등장시킨다.

²² 김내성, 『마인』, 삼성문화사, 1983. 이하 인용 시에는 면수만 밝히기로 한다.

죽거나 범죄와 연루된다. 탐정인 유불란만이 사건의 발생과 진행, 해결의 전과정을 지켜본다. 최종적으로 범인을 밝혀내고 인물들의 파편화된 사연을 재구성하여 서사를 완결하는 것이 그의 직무이다. 그러나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변호사 오상억의 추리를 해명한 뒤 본격적으로 사건의 해결에 나섰을 때 유불란이 탐정으로서 보여주는 추리는 논리보다는 직관에 의존하며 한 발 늦고 종종 빛나간 예측을 내놓는다.

“그것은 하여튼 한 인물의 사진을 세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해월과 황세민과 또 한 사람.....또 한사람?..... 남수가 주었다는 사진은 대체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유불란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문든 발부리로 조그마한 조약독 하나를 툭 찼다. 그리고 조양돌이 ‘풀’ 위에 떨어지기도 전에 “앗차, 백영호다!”하고 외쳤다.

“그렇다! 또 한 사람은 백영호씨에 틀림이 없다! 남수가 주었다는 사진은 확실히 백영호 씨가 가지고 있던 것이다! 어째서?.....어째서 그렇지 않은가!...어째서?.....글쎄 그렇지 않은가?.....” (221면)

불란은 무엇인가 지적할 수 없는 그 어떤 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다.(224면)

결정적 단서가 되는 세 장의 사진 중 하나가 백영호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유불란은 돌을 탁 차는 순간 알게 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과거를 지우고 황세민으로 살아가는 백문호의 정체를 밝히는 계기도 ‘그 어떤 예감’에 의해서이다. 탐정의 주요한 기술이 ‘증언에 의한 입증’을 단서들에 의한 입증으로 대체²³하는 것임에도 유불란은 추리의 근거는 물론 실제적인 단서를 제시하지도 못한다. 해월이 주은몽임을 밝히는 장면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주은몽에게 자신의 논리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며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는 것이다. 유력한 용의자는 ‘①유불란→②황세민→③주은몽→④오상억’ 순으로 이동하는데 ①에서는 탐정이 범인으로 오인되고 ②는 유불란의 빛나간 추리이다. 그리고 ③에서는 이미 오상억이 범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뒤이며 사건이 해결되는 ④는 범인의 예고된 살인이 모두 실행된 이후로 최종적으로 범인임이 드러난 오상억을

²³ 토마 나르스작, 김중혁 역, 『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3. 28 면.

현장에서 놓쳐버린다. 그리고 주은몽과 오상억마저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소설은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오히려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인물은 오상억과 탐정소설가인 백남수이다. 오상억은 신문지면을 통해 이선배로 위장한 유불란이 주은몽을 상해한 해월임을 논리정연하게 증명하여 유불란으로 하여금 사건에 개입하게 만들었고 백남수는 해월이 떨어뜨리고 간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백영호가 간직했다는 걸 알고는 부친의 고향을 방문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친다. 백남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지만 백남수는 '부부암의 비밀'이라는 핵심적인 실마리를 유불란에게 남긴다. 두 사람의 활약이 없거나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유불란은 범인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무딘 추리력은 곧 탐정으로서의 무능을 의미한다. 『마인』에 앞서 소설물 『백가면』에 등장하는 유불란이 박대준과 강수길이라는 두 소년의 보호자 역할에 머물 뿐이며 실제적인 탐정 역할은 두 소년이 수행한다²⁴는 점을 상기하면, 유불란이라는 탐정의 무능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결코 명탕점일 수 없는 유불란은 종종 희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사건에는 탐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애!"(192면)라는 탄식이나 "그렇다. 황세민씨의 입으로 부터 그러한 비밀이 손쉽게 줄줄 터져 나온다면 탐정이란 일이 뭐 어려울 것도 없는 게 아닌가!"(262면)라는 독백은 유불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주은몽을 향한 애정이 추리를 방해한다고 여겨 "탐정은 모름지기 '리얼리스트'여야 한다. '로맨티스트'여서는 아니된다!"(266면)라고 다짐하고도 곧바로 '초콜렛' 맛처럼 달콤한 연애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일면 경쾌해 보이기도 하는 유불란의 성격은 끔찍한 살인 사건을 다루는 『마인』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유머러스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평양 영문사를 떠난 해월은 진남포서 약 오리 썸 떨어져 있는 X도라는 섬에서 일 년 동안 생굴을 까먹다가 다시 X도를 떠나 구월산 어떤 절간으로 들어간 자취가 판명.(380면)

²⁴ 최애순에 의하면 유불란은 "육박전에서도 지적 게임에서도 무력한 모습만" 보여준다. 또한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이러기보다 아이들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보호자'의 역할에 머무른다. (최애순, 「30년대 모험탐정소설과 김내성 『백가면』의 관계 연구」, 『동양학』 제 44 호, 2008. 참조)

사건의 전면으로 나서기 전 금강산으로 떠나 해월의 자취를 탐색하는 던 중 유불란은 폐병을 앓던 해월이 '생굴을 까먹기 위해' 어디론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을 반복하며 박태일에게 금강산으로 떠날 것을 부탁하는데, 마침내 해월의 행적을 알리는 박태일의 전보는 해월이 실제로 '생굴을 까먹다가' 다시 구월산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한다. 유머소설의 색채가 강한 「연문기담」²⁵에서 발견되는 김내성의 희극적 재능은 긴박하고 무거운 사건을 소재로 한 『마인』에서도 발휘되며 살인 사건과 유머는 유불란의 경쾌한 성격을 통해 무리 없이 조화된다.

냉철함이나 뛰어난 이지를 지니지 못한 유불란은 평범하고 조금은 부족한 듯한 인물로 전형적인 탐정의 유형에서 벗어나 있다. 임경부와 오상억이 탐정소설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에 반해 유불란은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문제적 탐정이다²⁶. 하지만 유불란의 무능함은 백남수나 오상억의 탐정적 재능으로 보완되며 독자는 복수複數의 탐정이 펼쳐는 추리에 더욱 즐거울 수 있다. 그리고 독자는 『마인』에 배치된 유머러스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또 다른 '재미'를 선사받는다.

3-2. 가상의 도시 '경성'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멜로드라마

瀏不亂은 '혼란을 없애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나 늘 분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름이기도 하다. 유불란은 김수일로 위장해 주은몽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녀가 백영호와의 결혼을 결정하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선배로 다시 위장한다. 이 때문에 주은몽의 상해사건을 저지른 해월로 오해받고 그녀에게 탐정의 신분을 감춰던 유불란은 사건에 개입하지 못 한다.

²⁵ 김내성, 「연문기담」, 『판타스틱』 봄호, 페이퍼 하우스, 2009.

²⁶ 오상억은 "어떤 탐정소설에서 유명한 탐정이 '모든 불가능사를 제하고 남는 것이 그 수수께끼의 해결'이라는 말을 귀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162 면)라고 말하며 김수일과 이선배, 유불란이 동일 인물임을 밝혀낸다. 그리고 임경부는 탐정은 '어떠한 인물이라도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탐정학 제 일과의 교훈 그대로" (37 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을 용의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유불란은 "탐정은 절대로 사건 중의 이성과 연애를 해서는 안 된"(334 면)다는 반다인의 '추리작법 20 원칙' 중의 세 번째 조항을 말하면서도 스스로 이 원칙을 깬다.

① 엄여분



백문호 백영호

② 주은몽



백영호 유불란

③ 백정란



오상억 문학수

④ 주은몽



오상억 유불란

『마인』에서는 연애의 삼각구도가 여러 개 형성되고 서로 중첩되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사건 발단의 근원에는 백문호와 엄여분, 백영호의 삼각관계가 자리하고(①) 오상억과 문학수 두 사람 중 하나가 해월임을 암시하는 장면에서 흐르는 긴장감은 백정란을 둘러싼 애정의 대결구도(③)로 인해 더욱 고조된다. 예고한 살인을 실행하고 '귀신과도 같은' 능력으로 홀연히 사라지는 해월의 범행 동기는 사랑의 약속을 배반한 주은몽에 대한 복수이다. 삼각구도를 제거하고는 사건의 발생과 진행, 해결이 진행되지 않을 만큼 연애와 사랑은 『마인』의 서사를 추동하는 동력이다.

사나이 하나에 계집 둘, 계집 하나에 사나이 둘 — 이것은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는 한 개의 너무나 진부한 비극이다. ...(중략)... 만일 조물주로 하여금 한 사나이에겐 한 계집을, 한 계집에게 한 사나이를 맡겨줄 수 있는 신령한 힘을 가지게 하였다면 이 세상의 이야기 거리는 절반 이상이나 없어지고 말 것이다.²⁷

작가의 의식으로 간주되는 작품 속 '필자'의 목소리는 1930년대 대중소설의 흐름과도 관련한다. 최독견의 『승방비곡』(1927)에서 김말봉의 『찔레꽃』(1937), 박계주의 『순애보』(1939)로 이어진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멜로드라마로 편향된 당대 대중의 취향을 잘 보여준다. “먼 듯 하면서도 가까운 것은 젊은 남녀의 마음과 마음이라고, 이것은 연애소설독본 제일과에 싹어 있는 말일 것이다.”(172면)라는 구절과 “여자란 항상 은혜와 애정을 혼동하는 습관을 가진 동물이라고-이것은 또 어느 대중소설가의 전매특허가 되어 있는 문구라든가”(172면)라는 필자의 발언은 ‘연애소설’, 즉 멜로드라마를 의식하고 있다. 김내성은 연애와 사랑이 진부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사람들의 관심사이며 삼각의 구도를 취했을 때 더욱 강렬한 흥미를 자아내는 소재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멜로드라마의

²⁷ 김내성, 「이단자의 사랑」, 『비밀의 문』, 명지사, 199 4.

전성시대였던 1930년대에 『마인』의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는 독자들에게 큰 흡입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현대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표현되는 백문호와 엄여분의 애절한 사랑과 주은몽이 진실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이냐에 관한 호기심, 그리고 얽히고설킨 삼각관계는 『마인』을 한 편의 손색없는 멜로드라마로 읽게 만든다. 여기에 첫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채 일생을 독신으로 사는 황세민의 순애보와 사랑하는 여인이 범인임을 밝혀야 하는 유불란의 심적 고통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주류를 이루었던 당시 멜로드라마와 차별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1930년대에 도약기를 맞은 조선의 대중문화와의 관계, 특히 영화와의 관계 하에서 『찔레꽃』과 『순애보』의 성공 요인을 고구한 강현구²⁸의 논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인』의 주 무대인 경성은 실제의 지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상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첫 장면에 등장하는 가상 무도회는 '훌륭한 이국풍경'(12면)으로 당시의 경성에는 대규모의 무도회를 개최할 만한 주택이 없었다는 점²⁹에서 '불가능한 현실'에 가깝다. 백만장자로 파리에 유학을 다녀온 조각가 백영호는 수영장이 딸린 삼 층 양옥집에서 기거하고 세계적인 무용수 주은몽은 '공작부인'-작위와는 관련이 없으나-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선배(유불란)와 경찰 사이에서 벌어지는 오토바이 추격전과 몇 차례의 자동차 추격전, 애드벌룬을 이용한 오상역의 기발한 탈출 방법 등등 이국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장면들은 실제의 지명으로 등장하는 작품 속의 경성을 허구로 이루어진 가상 도시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화된 도시를 모방함으로써 조선의 현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적되는 경성의 허구성은 이미 대중들에게 대중소설과 영화를 통해 습득된 '낯익은' 현실이었다. 1925년에 이미 2000편이 넘는 미국영화가 수입되었고³⁰ 이들 중 대부분이 스펙터클한 총격과 격투, 추격이 볼거리로 제공된 서부극이었다. 『찔레꽃』에서도 말을 타고 경성 시내를 질주하는 장면이 발견되는데 이는 대중들이 영화관에서 즐기던 친숙한 정경으로 단순한 극적 과장만은 아니다.

²⁸ 강현구, 「1920,30 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굿·배드·맨과 변사의 목소리」, 『국어국문학』134 집, 국어국문학회, 2003.

²⁹ 전봉관, 「『마인』속 경성과 경성문화」, 『판타스틱』 봄호, 페이퍼 하우스, 2009.

³⁰ 강현구, 위의 글 참조.

다른 대중문화 영역과의 용이한 호환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소설은 역으로 여타 대중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마인』 또한 1930년대에 높은 인기를 구가한 멜로드라마의 요소와 영화의 시각적인 화려함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일생 장르문학에 매진하였던 김내성은 추리소설뿐 아니라 유머소설, 연애소설 등의 여타 장르문학과 대중 영화를 의식하며 『마인』을 추리소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유연한 태도로 이들의 '장점'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3-3. 작품 속의 숨은 인물 - '필자'의 목소리

당시 대중소설의 성공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변사의 목소리'이다. 배우들의 감정을 관객에게 목소리로 실연하던 변사와 같이 작가는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인물들의 내면을 전달하고 정황을 설명한다. 독서 체험이 극장 체험으로 변환되는 순간이다.³¹ 『마인』에도 필자가 빈번히 등장하여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에서 발표된 초기의 작품들을 제외하면 필자의 목소리는 김내성의 모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마인』의 '필자'는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을 넘어선 다채로운 기능을 수행한다.

필자는 여기서 수상한 화가 이선배가 허덕거리면서 쫓겨 들어간 그 막다른 골목이란 것을 좀 세세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46면)

그것은 하여튼 필자는 여기서 잠깐 붓끝을 돌려, 독자제군의 머리를 어지럽게 한 이 복잡다단한 사건을 절반이상이나 단순화시킨 한 개의 명논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157~158면)

위의 두 인용문에서 필자는 서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데 기여한다. 필자는 지도나 인터뷰, 유서, 신문 기사 등 물적인 단서를 직접 독자에게 보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형을 재구성할 경우에 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독자의 눈을 그리로 이끈다. 마치 영화의 장면 전환 효과를 발휘하며 소설의 다양한 물적 증거들을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³¹ ____, 위의 글 참조.

① 그것은 하여튼 필자는 이만한 예비 지식을 독자제군에게 던져주고 이제부터 세계범죄 사상에 잇을 수 없는 일천 구백 삼십 X년 삼월 십 오일 명수대 주은몽의 저택에서 열린 가장 무도회로 인도하고자 한다.(8면)

② 독자제군은 이 선배가 오늘밤 이 공장부인의 저택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부터 자기의 본 음성은 감추고 가짜 목소리고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22면)

③ 독자제군이여! 유불란이 뺨은 이 한마디를 기억해 두라!(331면)

필자의 기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필자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강조하며 독자에게 기억해 둘 것을 권한다. 인물들에 관한 정보를 간략히 소개한 ①에서부터, 독자는 탐정의 추리를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직접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타원형의 거울」에서 백상몽은 탐정잡지 『괴인』에 '김나미 살인사건'의 수사기록을 싣고 현상모집을 실시한다. 증인들의 진술과 범행 현장의 그림, 사건의 정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수록하여 독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을 밝히게 한 것이다. 추리소설의 사건은 탐정과 독자 모두에게 던져지지만 『마인』은 백상몽의 현상모집처럼 독자 자신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필자는 ②와 ③과 같은 비중 있는 단서가 나올 때마다 범인을 규명해야 하는 임무를 독자에게 환기시킨다.

오늘밤 처음으로 공장부인의 현관을 들어섰다는 수상한 화가 이선배는 대체 전화기가 이층 서재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한달 후면 공장부인의 남편이 될 백영호 씨가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몸소 공장부인을 안고 침실로 옮긴 것은 또 무슨 까닭일까?(30면)

이것은 독자제씨와 더불어 필자 역시 대단히 궁금한 하나의 수수께끼다.(384면)

필자는 기실 모든 정보와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으나 독자에게 짐짓 모른 척 질문을 던지고 함께 미궁을 풀어야 하는 공동의 직무를 수행하는 척한다. 후에 오상억에 의해 김수일과 이선배, 유불란이 동일임이 밝혀지는데 필자는

그 가능성을 직접 제기하고 독자에게 먼저 암시한다. 그리고 “다만 이 소설을 끝까지 읽어 주기를 바랄뿐이다.(178면)”라고 말하며 독서를 격려하기도 한다. 작가와 독자는 『마인』에서 ‘필자’와 ‘독자제군’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독서가 이루어지는 동안 함께 호흡한다. 작품 바깥의 작가와 독자가 ‘필자’의 목소리를 매개로 작품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필자의 경계 넘기는 때때로 ‘탐정소설’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더욱 극대화된다. ‘탐정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으나 이것이 탐정 소설이 아니고 하계의 생생한 현실이란(126면)’ 발언이나 무리한 가설을 ‘탐정 소설적 공상(172면)’이라고 표현하며 추리소설 속의 인물과 필자는 추리소설과 기묘한 거리두기를 행한다. 독자가 읽고 있는 추리소설이 ‘추리소설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밝힘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일개의 탐정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실물감이다. 그리고 독자의 능동적인 독서 참여와 작가와의 호흡, 그리고 소설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실물감은 무엇보다도 ‘필자’의 다양한 기능으로 획득된다.

4. 결론

대중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방위로 활동했던 작가 김내성은 작가의 탄생 100주년이었던 2009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활발히 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추리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수식은 그가 이루어 낸 성과의 일부분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간 추리소설의 장르적 특성 하에서 고찰되었으나 『마인』은 김내성의 작품들이 가진 ‘대중성’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했을 때 또 다른 논의의 지점들을 생성한다.

이 글에서는 무능하지만 유쾌한 유불란의 성격으로 인해 독자가 ‘복수의 탐정이 펼치는 추리’와 ‘희극적인 재미’를 선사받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김내성은 추리소설인 『마인』에 멜로드라마적인 성격을 가미하고 실재하는 도시 ‘경성’을 이국의 풍물과 박진감 넘치는 활극의 공간으로 ‘변형’시켰다. 이는 대중문화가 도약하며 시장을 넓힌 1930년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당대 대중들의 취향은 멜로드라마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영화는 독자가 작품 속 경성의 비현실성을 생생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숨은 인물처럼 작품에 등장하는 ‘필자’는 우선 서사의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두 번째로 독자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참여하도록 만들며, 마지막으로 작가와

독자, 소설과 현실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독자의 재미와 흥미를 배가시키는 요소로 분석된 내용은 김내성의 추리소설관과 대중문학에 관한 입장이 의식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이상 『마인』의 대중성 성공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작품이 대중적 성공을 거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 문학의 불모지였던 장르문학을 개척하였던 김내성에게 한국 문단은 그에게 알맞은 영지를 할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연구자들에게 김내성은 광활한 옥토이며 더 많은 노력들로 이를 일구는 일은 앞으로의 남은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옥희, 「30년대 후반 대중소설의 출판」, 『민족문학사연구』13호, 민족문학사학회, 1998.
- 강현구, 「1920,3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굿·배드·맨과 변사의 목소리」, 『국어국문학』134집, 국어국문학회, 2003.
- 김내성, 「살인예술가」, 『朝光』, 1938. 3월~5월.
- _____, 「추리문학소론」, 『비밀의 문』, 명지사, 1994.
- _____, 「탐정소설론-제1회」, 『새벽』, 1956. 3
- _____, 「탐정소설수감」, 『博文』제10호, 1939.
- _____, 『마인』, 삼성문화사, 1983.
- _____, 「연문기담」, 『판타스틱』봄호, 페이퍼 하우스, 2009.
- _____, 「이단자의 사랑」, 『비밀의 문』, 명지사. 1994.
- 김주리,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본 김내성의 『마인』」, 『한국문예비평연구』2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 김창식, 「추리소설 형성기의 실상과 김내성의 『마인』」, 『현대문학 이론연구』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 박진영, 「연보 및 작품 목록」, 『판타스틱』봄호, 페이퍼 하우스. 2009.
- 백철, 「김내성론」, 『새벽』, 1957. 4.
- 오혜진, 「1930년대 추리소설의 존재방식에 관한 일고찰」, 『우리문학연구』20집, 우리문학 연구회, 2006.
- 전봉관, 「『마인』속 경성과 경성문화」, 『판타스틱』봄호, 페이퍼 하우스, 2009.
- 정혜영, 「김내성과 탐정문학-일제시대 창작작품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 연구』20집, 한국현대문학회, 2006.
- 정혜영, 「근대를 향한 왜곡된 시선-김내성의 「살인예술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3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 안희남, 「김내성 저 『마인』-명탐정 유불란 선생」, <조선일보> , 1940.1.15.
- 이태준, 「통속성이라는 것」, 『무서록』, 깊은샘, 1995.
- 최애순, 「30년대 모험탐정소설과 김내성 『백가면』의 관계 연구」, 『동양학』제44호, 2008.
- 토마 나르스작, 김중혁 역, 『추리소설의 논리』, 2003.